

# Sermon of the Week:

## Sanctification: Working Out the Salvation of the Soul

**Passage:** Genesis 4:8-26

**Date:** November 10, 2024

**Pastor:** Dongsuk Chung

God is Spirit, so He does not have a form or shape. Therefore, God created Adam, in His own image and likeness, and he became a foreshadow of the One to come, Jesus Christ. Adam is like a photograph, while the coming Jesus Christ is the real substance. However, Satan deceived mankind by telling them that eating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would turn them into the real substance, like God Himself, leading to humanity's fall and sin's entry into man. Therefore if the real substance and nature of God, Jesus Christ, does not enter into us, then we cannot know our true identity and origin. However, as soon as we accept the Word of God through faith and come to know Jesus through the Holy Spirit, then we are able to understand who we are and our life's purpose.

Sin is the embodiment of Satan and is his personification. Cain refused to heed the gospel shared by his parents and chose his own path and lived for himself—this is living life under Satan's influence. Cain was so captive to Satan that he ultimately refused to accept God's mercy. Despite knowing the consequences of sin, he did not repent and was eventually abandoned by God, becoming a wanderer on the earth and living a life feeling trapped by guilt and chased by inner psychological troubles.

Cain left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built the city of Enoch for his own survival. This marks the beginning of the world as we know it. People living in the world think that life is about survival—but we, who were born

into sin and death, are dead beings—and our inevitable destination is the grave. Music, art,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while intended to aid human survival, are ultimately worthless efforts.

Thus, God gave Jesus, His only Son, to this world which was cursed because of Adam. Jesus came as one of us, died, and was resurrected, bringing new life to us. He came to us as the life of resurrection. In this world, death is considered a curse because it means the end, but in Christianity, there is nothing more blessed than death. That death is the death of the sin within me, the death of Satan, the forgiveness of the sins I have committed, and the death of my old self. When those things are destroyed through death, a clean and complete new life—the life of God—will dwell within me.

The life of resurrection is the life in Jesus. Those who have received this life must spend the rest of their lives working out this salvation. Having received the salvation of the spirit, we must also attain the salvation of the soul and the body, and what we have received to obtain that salvation is the life of resurrection. Like how gold can instantly conduct electricity because it is made up of a single element, the spirit is singular in nature, so its salvation happens instantly. The body will also be transformed instantly at the time of the Lord's return. However, the soul—which contains the mind, emotions, and will—takes a longer time to be saved. Sanctification refers to the salvation of the soul. For those of us who are saved, the Spirit dwells within us, so when we die to ourselves, the Spirit within us will cause us to will and act according to His purpose, thus bringing salvation to our spirit, soul, and body. We do not need to do anything but simply obey the Holy Spirit. When the devil tries to deceive me

by making me focus on things that are lies and by causing me to worry about what to eat or drink, that is when I must put these thoughts to death on the cross. Once we die to ourselves, the Lord appears and takes care of everything on our behalf.

A car's navigation system guides the driver until they reach the destination, even if the driver stubbornly drives the wrong way based on their own judgment. The Lord guides us in a similar way. As long as we obey, He will lead us to our destination. Even when our soul or body, which has not been fully saved, makes mistakes and commits sins, He does not abandon us and will protect us to the end. The Lord who dwells within us stays with us—like a navigation system—until we reach our destination.

No matter what circumstances or hardships we face, we who have been saved must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When you worry, it's a sign that you are being deceived by the devil. When we start to worry, we must recognize this and surrender these thoughts to the cross, reminding ourselves: "What has died with Christ is trying to come alive again." When we die to ourselves, the Lord flows out of us as holiness and God accepts this holiness. The work we have to do after being saved is to die to ourselves. By acknowledging and confessing the completed work of salvation and God's declaration that "It is finished", the devil within us flees, and we are set free. When you believe and give thanks for everything that has been given to you according to that eternal truth, then your spirit, soul, and body will become strengthened.

Please scan the QR code with your phone's camera for the link to the YouTube video of the full sermon.



# 심니소식

## 나성교회



## 심성교회

NOVEMBER 24, 2024

NASUNGCHURCH.NET

ISSUE 30

###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4장 8-26절

**날짜:** 11월 10일, 2024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아담을 만드셨으며 이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표상은 형상이라는 말로 실물이 아닌 사진입니다. 아담은 사진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실물인데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실물이 된다고 사람을 속이고 타락시켜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 속에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 곧 근본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순간 사람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 정체기가 확립됩니다.

죄라는 것은 사탄이 체현된 것으로 하나의 인격입니다. 가인이 부모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가인은 사탄에 사로잡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벌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죄의식에 잡혀 심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가 생존을 위해 에녹 성을 쌓았는데 이것이 세상의 시작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죽은 존재이므로 묘지로 가는 것밖에 없는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과 예술, 기계 문명도 사람 생존을 위해 세상이 만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되어서 죽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을 의미하기에 저주로 생각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죽음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 죽음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죽음이요, 사탄의 죽음이며, 내가 지은 죄의 용서함이며, 옛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죽음으로 없어지면 깨끗하고 완전한 새 생명, 신의 생명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주님의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남은 삶을 구원을 이루는 데 써야 합니다. 영의 구원을 얻었으면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받은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은 단일체 성질이기에 때문에 단번에 구원 얻어버리고, 몸도 주님 재림 때 순간적으로 변화되지만, 혼은 그 속에 지·정·의가 다 들어 있어 구원 얻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성화는 이 혼이 구원 얻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에게 영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내가 죽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영·혼·몸 다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속여 거짓에 속한 것을 보게 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게 할 때 그것을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죽으면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처리하십니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 운전자가 고집스럽게 자신의 판단으로 엉뚱한 길로 운전해도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운전자를 인도해 줍니다. 이처럼 주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순종만 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안내해 주십니다. 구원 얻지 못한 내 혼이나 내 몸이 실수하고 죄

를 범할 때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은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고난이 와도 구원 얻은 우리들은 영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염려를 하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염려가 일어나면 '죽음이 또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죽인 것인데 또 살아났구나' 하며 십자가에 넘겨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 거룩이고, 그 거룩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는 일입니다. 다 완성해 놓은 구원, 다 이루셨다는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물러가고 해방을 얻습니다. 그 영원한 진리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영도, 혼도, 몸도 강건해질 것입니다.

해당 설교의 전체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 나성교회 일정

-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 삼성교회 일정

- 시니어스쿨이 12월 12일(목)까지 진행됩니다.
- 성결론 세미나가 매주 수요일에 시간에 있습니다.

###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 헌금 페이지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고 카메라 화면에 나오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mailto: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일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층 예배실

# 중보기도

##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박현중 장로 (베드로선교회) - 출장 중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거동치 못하는 상태입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신상문 형제 (베드로선교회) - 탈장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송종철 장로 (모세회) - 뇌 혈전치료를 일상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 이상의 합병증으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으며 강건케 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 김문옥 집사 시어머님 (김영례 90세) - 고관절수술 후 외상상태로 입원 중입니다.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 최라예 자매 (15세) - 위산과 담즙의 과분비로 위/식도/십이지장 염증과 궤양 있음, 소화기관들의 비정상적 호르몬 분비로 인한 기관의 염증 및 통증유발,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발견되고 근본적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 권정희 집사 모친 양원숙님(86세)께서 위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위암 수술은 잘 마쳤으나 수술 중 췌장과 십이지장에 전이가 발견되었고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대로 마무리하였다고 합니다.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고 주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술 후 회복을 위해
- 장미녀 집사 시부 남상철님 (92세) - 폐암 4기로 입원 중입니다. 병의 회복과 영혼구원을 위해
- 박연자 집사 (67세) - 급성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선교소식

## 나성교회 선교부 멕시코 선교센터 방문

지난 16일 Love Mexico를 섬기시는 박세목 장로님과 함께 나성교인 7명이 Mexico 엔세나다에 있는 나성교회 선교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만나 왕복 8시간이 넘는 장거리 여정이었지만 굉장히 좋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계신 임 목사님 가정과 김성봉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으며 도착과 함께 센터 견학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구절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성교회 형제자매님의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또 교제 시간에 사모님께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깨달음을 매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는 간증은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 히 한 살이 안 된 주안(아들)이가 아프지 않고 목사님과 사모님 보다 더 현지에 잘 적응해 간다는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나성교회 형제자매님께서 주신 물품과 후원금도 전달하였습니다. 같이 센터에 방문한 자매님께서 이번 센터 방문은 다른 여러 선교와 다르게 평안함을 준다며 간증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방문에 아침, 점심, 저녁까지 제공해 주신 형제자매님과 기도로 협력해주신 많은 교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나성교회 멕시코 선교센터를 통해 주님의 귀한 복음이 멕시코 땅에 깊이 뿌리내리며 많은 생명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나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 단체/선교사 명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 나성교회 KM

- Home Depot 사역 - 김학철 목사
- 물댄동산 (장애인 선교 단체)
- LA 거리 선교회 - 전예인 목사
- 멕시코 (엔세나다) - 임주영 목사
- 멕시코 (티후아나) - Carlos Chavez 목사
- Love Mexico - 박세목 장로
- Albania - 양은숙 선교사
- 중동 (이라크 & 요르단) - 구금성 선교사

### 나성교회 EM

- Cambodia (TASSEL) - Joji Tatsugi
- Indonesia - 3 missionary couples:
  - a. Ruth and Austin Kuklenski
  - b. Josiah and Sophie Glesener
  - c. Michael and Morgan LeBlanc

### 주간소식

-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 다음 주일에는 12월 정기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 각 남녀선교회 회장들께서는 2024년 선교회 결산 보고서를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교회 달력이 lobby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가실 때 가정당 1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이번주 11월 28일과 29일 (목, 금)은 Thanksgiving Day 주간으로 교회 사무실은 Close합니다.
- 오늘 예배 후 식사는 함정희 자매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 삼나소식 웹사이트



<https://samnanews.modoo.at>